

2018 해외 주요인사 초청사업 K-FELLOWSHIP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TRANSLATION & PUBLICATION
SYMPOSIUM

2018.
6. 20. WED
9:30 -
12:30

Conference Room 307
COEX, SEOUL

코엑스컨퍼런스룸 307호

THE KOREAN LITERATURE SHOWCASE

한국문학 쇼케이스

사회자

서효인

발제자

백지은

박혜진

토론

Ira Silverberg

Ask Hansen

최미경

강윤정

강영규

THE KOREAN LITERATURE SHOWCASE

한국문학 쇼케이스

*International
Translation
& Publication
Symposium*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

프로그램

PROGRAM

사회자 **서효인** 시인, 민음사 편집부 차장

Moderator **Seo Hyo In** Poet/Editor, Minumsa Publishing Group

1부. 한국문학 전문가 발제		
9:30 - 9:40	개회사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장
9:40 - 10:00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문학의 지형과 동향	백지은 문학평론가
10:00 - 10:20	번역가의 책무와 헌신	최미경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2부. 출판인 발제		
10:30 - 10:50	『엄마를 부탁해』와 『채식주의자』 이후 창비가 펴낸 주요 장편소설	강영규 창비 문학출판부장
10:50 - 11:10	치릿 소설에서 여성 소설까지	박혜진 민음사 편집부 문학2팀 차장
11:10 - 11:30	한국문학 쇼케이스 지금, 한국문학의 가장 신선한 성취를 중심으로	강윤정 문학동네 편집부 과장
종합 토론		
11:40 - 11:55	종합 토론 1	Ira Silverberg Simon & Schuster 출판사, 미국
11:55 - 12:10	종합 토론 2	Ask Hansen Gyldendal 출판사, 덴마크
12:10 - 12:30	관객과의 대화	

Session 1. Presentations by Experts on Korean Literature		
9:30 - 9:40	Opening Remarks	Kim Tae-hoon Director,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im Sa-in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9:40 - 10:00	The Landscape and Trend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Mid 2010s and Beyond	Baik Ji Eun Literary Critic
10:00 - 10:20	The Obligation and Dedication of Translators	Choi Mikyung Professor,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Session 2. Presentation by Publishers		
10:30 - 10:50	Major Releases by Changbi after the Publication of <i>Please Look After Mom</i> and <i>The Vegetarian</i>	Kang Young-kyu Editor, Changbi Publishers
10:50 - 11:10	From Chick Lit to Women's Fiction	Park Hye-jin Editor, Minumsa Publishing Group
11:10 - 11:30	Showcasing the Freshest Works of Korean Literature	Kang Yun-jeong Editor,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Discussion		
11:40 - 11:55	Discussion 1	Ira Silverberg Senior Editor, Simon & Schuster/ USA
11:55 - 12:10	Discussion 2	Ask Hansen Acquiring Editor, Gyldendal/ Denmark
12:10 - 12:30	Q&A	

목 차

CONTENTS

1부. 한국문학 전문가 발제

08	개회사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
10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장)
12	사회자	서효인 (시인, 민음사 편집부 차장)
14	발제 1	백지은 (문학평론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문학의 지형과 동향
25	발제 2	최미경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번역가의 책무와 헌신

2부. 출판인 발제

33	발제 3	강영규 (창비 문학출판부장) 『엄마를 부탁해』와 『채식주의자』 이후 창비가 펴낸 주요 장편소설
40	발제 4	박혜진 (민음사 문학2팀 차장) 칙릿 소설에서 여성 소설까지
45	발제 5	강윤정 (문학동네 편집부 과장) 한국문학 쇼케이스_ 지금, 한국문학의 가장 신선한 성취를 중심으로

종합 토론

55	종합 토론 1	Ira Silverberg (Simon & Schuster 출판사, 미국)
56	종합 토론 2	Ask Hansen (Gyldendal 출판사, 덴마크)

Session 1. Presentations by Experts on Korean Literature

08	Opening Remarks	Kim Tae-hoon (Director,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10		Kim Sa-in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12	Moderator	Seo Hyo In (Poet/Editor, Minumsa Publishing Group)
14	Panel 1	Baik Ji Eun (Literary Critic) The Landscape and Trend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Mid 2010s and Beyond
25	Panel 2	Choi Mikyung (Professor,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The Obligation and Dedication of Translators

Session 2. Presentation by Publishers

33	Panel 3	Young-kyu Kang (Editor, Changbi Publishers) Major Releases by Changbi after the Publication of <i>Please Look After Mom</i> and <i>The Vegetarian</i>
40	Panel 4	Park Hye-jin (Editor, Minumsa Publishing Group) From Chick Lit to Women's Fiction
45	Panel 5	Kang Yun-jeong (Editor,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Showcasing the Freshest Works of Korean Literature

Discussion

55	Discussion 1	Ira Silverberg (Senior Editor, Simon & Schuster/ USA)
56	Discussion 2	Ask Hansen (Acquiring Editor, Gyldendal/ Denmark)

개회사 1

한국문학 쇼케이스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내·외 문학 및 출판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인사간 교류의 장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장님과 관계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매년 해외의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우수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국내 인사 및 기관과의 교류 및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K-Fellowshi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협력하여 해외 출판인 12분을 초청하였는데,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 등을 통해 평론가, 번역가, 출판인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문학 해외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문학이 상대적으로 세계에 덜 알려진 것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우수한 번역자와 출판인들이 늘어나길 기대하면서 준비한 이 사업을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함께 호흡하고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문학 쇼케이스가 끝나면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모쪼록 한국문화의 정수를 접하고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해외출판인과 국내 문학계 인사들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지길 바라고, 한국을 만나고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김 태 훈**

Opening Remarks 1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Korean Literature Showcase Symposium 2018 and welcome all domestic and foreign guest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President of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Mr. Sa-In Kim, and everyone who helped organize this precious event. Thank you all for making the time to come out and participate.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hosts annual invitational fellowships (K-Fellowship) where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are invited to discover Korean culture and meet different institutions of their field.

This year, in cooperation with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12 literature editor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invited, and with programs such a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here we expect dynamic debates between editors, translators and critics to happen, we hope to see new prospect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I believe that the reason why Korean literature is not known internationally is because of the lack of translation. I truly hope that more translators and editors will com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Korean literature and that events like these will help Korean literature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enrichment of global humanity.

I also heard that there is a trip to UNESCO heritage sites organized for our guests. I wish you a pleasant trip and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experience the beauties of our country.

Lastly, I hope that this week will be full of networking opportuniti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literary professionals. But most of all, I truly wish you a pleasant stay in Korea.

Director,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im Tae-hoon**

개회사 2

한국문학이 해외의 독자들을 만나기까지는 실로 많은 분들의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002년부터 국내외 번역가 및 출판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한국문학이 세계와 만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금년의 심포지움은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출판인, 평론가, 번역가 등을 모시고 최근 한국문학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될 뿐 아니라, 해외 8개국에서 초청된 출판인 열두 분이 꾸미는 세미나, 11인의 한국 작가들과 번역가가 함께하는 낭독회 등이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국 출판인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해외문화홍보원과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흔쾌히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와 만나는 길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부디 귀한 지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김 사 인

Opening Remarks 2

It takes the effort of many for even a single work of Korean literature to meet with its foreign audience. With the attendance of numerous translators, publishers and many others in the industry from Korea and abroad, LTI Korea has been hosting the <International Translation & Publication Symposium> since 2002. We have aimed to help set a path to bring Korean literature closer to the rest of the world.

You will find that this year's symposium offers a wider range of talks and discussions. We will take a close look at recent trends in Korean literature with well-known publishers, critics, and translators, present a seminar with 12 publishers from 8 countries, and also readings with 11 Korean writers and translators. We believe this symposium will help reveal the undiscovered beauty and colors of Korean literatur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our friends at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and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for making this meaningful event possible. I feel confident the great exchanges that will take place will widen the road of Korean literature to global literature.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Kim Sa-in**

사회자 Moderator

서효인

시인, 문학편집자. 저서로 시집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 『백 년 동안의 세계대전』, 『여수』, 산문집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잘 왔어 우리 딸』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대산문학상, 천상병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민음사 편집부 한국문학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격월간문학잡지 『릿터』의 책임편집을 맡고 있다.

Seo Hyo In

Seo Hyo In is a poet and a literary editor. His books of poetry include *Guidelines for a Young Partisan*, *100 Years of World War*, and *Yeosu*. He is also the author of two essays, titled *All Because of Baseball* and *Welcome, My Daughter*. He is the recipient of the Kim Soo Young Literary Award, Daesan Literary Award and the Cheon Sang Byung Literary Award. He currently works as the manager of the Korean Literature Team at Minumsa and as the editor-in-chief of the bi-monthly literary magazine *Littor*.

Session 1

세션 1

발제 1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문학의 지형과 동향

백 지 은 문학평론가. 2007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 평론 부문으로 등단했다. 평론집 『독자시점』(2013)을 출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러분께 최근 한국 문학의 분위기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난 5년여 정도를 돌아봅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가 2017, 2016, 2015, 2014 …… 하다가 2014년에서 멈춥니다. 그 해 봄의 비극을 벌써 잊은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4월 16일로 4주기를 넘긴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한국 사회의 의식구조는 거대한 변환 중에 있으며 한국 문학(장)도 거기에 강력히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 사회는 언제나 변화 중이고 문학은 더구나 "영구 혁명 중", 현재 한국 문학(장)의 움직임은 오로지 '세월호' 이후의 시간에만 귀속시킬 수는 없겠지요. 다만, 그 참사가 타격한 한국 사회의 어떤 움직임과 그 동력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공적인 능력의 회복과 공론장의 작동"이라고 진단합니다.

*

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소설가 박민규)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소설가 배명훈)고 절규했습니다. 절규 이후에 올 질문은 다음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도모해야 하는가. 또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없으므로 우리는 각자 어떻게 도생(圖生)할 것인가. 사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질문이고 뭐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으나,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에서 달아날 수 없다"(소설가 황정은)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날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평론가 복도훈)라고 되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비참과 절망과 혐오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목소리들이 안 들려온 건 아닙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더는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계를 향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소설가 황정은) 그리고, 막혀버린 말문을 터서 글을 쓰는 작가들의, 단념과 혐오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하반기쯤부터 작가들은 어렵게 말문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최은영, 『미카엘라』, 정용준, 『6년』, 김애란 『입동』 등등) 산 자들의 공존과 연계에 관한 이야기, 산 자들의 고통이나 무력함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그 소설들은,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영리적(營利的) 메시지 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관념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산 자들의 공존과 연계, 그

것은 죽음, 고통, 비탄 등에 대한 혼돈, 막막함, 불안, 떨림 등을 통과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희미하게 형성된 동감이나 우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갈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완강한 결합이라기보다 구성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의 결집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른바 '공공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의 원망(願望)이 곧 '공적인 능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능력은 '약자'의 아픔을 최선 다해 상상하는 능력으로, 어떤 '연약한 연합'이 도모되는 서사를 필연적으로 그려내는 능력으로, 한국의 작가들에게서 새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세월호사건의 원인을 공공성의 파탄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사건 직후, 충격과 당혹에 휩싸인 사람들이 겨우 내뱉은 질문,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듣기를 원했던 대답, 머리를 맞대고 앉아 주고받을 수밖에 없던 화제(話題), 즉,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려는 말, 인정하고 싶은 말, 부정하려는 말, 거의 모든 말들은 우리 삶의 '공공성'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얼 부르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세월호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것을 욕망하고 다른 것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리라는 진단, "4월 16일 이후 어떤 이에게는 '바다'와 '여행'이, '나라'와 '의무'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할 것"(소설가 김애란)이라는 예감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작가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과 주제에 천착하였고 그것을 정당하게 다룰 만한 창조적 양식을 새롭게 발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들 자체보다 말들이 움직이는 길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보니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조차 다르게 여겨진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동시대 모든 문학은, 그것이 세월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을 때조차 반드시 세월호와 관련되어 파악되고야 만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장(場)'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를테면 '한국적인 삶', '사실적인 세상',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것' 등의 좌표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문학의 감성이 급변했다"(평론가 고봉준)라고 단언해도 될지 주저하면서도, 2015년 즈음 작가들은 '문학적 감성의 변화'에 대해 자주 논의했습니다. 특히 소설가들은 외부적 요건 상 '소설' 자체를 다시 사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집단적 경험에 의해 한국 문학의 감성이 변했다고 했습니다.(1972년이고 1999년부터 소설을 써 온 이기호는 "다시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작가 개인의 의지나 결단보다는 현실의 압력에 대한 응답의 측면"(평론가 고봉준)에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감성'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문학적 '회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건의 충격은 공통적으로 말의 '필요/역할' 혹은 말의 '회로'에 대한 중대한 고민을 노출시켰는데, 그 고민은 작가나 작품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 그 '외부'는 이미 그들의 고민이 요청되는 현장 - 즉 말의 필요/역할/회로 등이 문제시될 만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현실의 중력"인 그 현장, 그것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요컨대,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공론장의 존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의사소통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공론장의 이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기획은 아닐까"(평론가 박성창)라고 회의했던 그 장소 말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선명한 대립구도, 하나의 문제에 집중된 관심, 문제 해결의 시한과 같은 특수한 조건들이 사회적 공론장을 고도의 긴장과 흥분, 열정으로 가득한 모험적 시공간"(평론가 김태환)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응집력을 상실한 뒤 이후 제대로 작동한 기억이 거의 없어져 간다는 한탄이 그즈음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해" 진실을 묻고 듣고 말하려는 사람들, "진실에 대해 함께 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과 세계의 비참을 최선을 다해 연결"지음으로써 '공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세월호사건의 충격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월호사건 이전부터 "사회적 지평을 향한 문학적 탐구"(평론가 정과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사회적 지평, 즉 집단 내부의 인간들의 상호 관계와 집단들 간의 관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그 가능성의 측량 위에서 도모하지 않는 한국문학의 경향'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말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말이 그들의 호흡을 주관하는 공기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느끼고 있었으며, 세월호사건 이후 그 말들이 이전과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자리, 즉 우리 사회에서 말들이 움직이는 여러 길들 너머로, 멀리 지평선 같은 것을 원했고, 또 보게 된 것, 그런 게 아닐까요.

*

그리하여 최근 수년 사이에, 공적인 능력의 회복과 공론장의 작동이라는 사건이 문학적으로 충실히 수행되어 왔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는 대답부터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난 2-3년 사이 한국 문학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대중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 중 한 사람인 신경숙의 초기작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의혹은 뚜렷하고 해명은 모호하여 작가의 위상은 몰락했습니다. 대중들은 한국 문학의 타락이라며 실망했고, 문학장의 무능과 부패의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는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 먼저 문학 쪽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셈인데, 그것은 트위터 상에서 시작된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력형 성추행/성폭력과 유사한 작태였으나, 특별히 경악스러운 특징도 드러났습니다. '문학은 본래 뭔가를 넘어서야 하는 것', '탈선을 해야 문학을 알 수 있다', '문학을 하려면 틀을 깨야 한다' 등의 괴상망측한 이유로 성추행/성폭력을 정당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그간 문학계 내부에서 눈감아 온 것 아니냐는 비판과 자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학이 '철지난' 문학적 규율에 기댄 비평의 복권을 외친다는 비판, 문학적 재현과 해석에서 '시대착오적' 인식을 수호한다는 비판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재 독자-대중의 문화적 욕구는 첨단 문화의 소화를 넘어 보다 나은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한국 문화는 그런 대중의 욕구와 추구에 둔감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엘리트주의와 가부장제에 밀착한 한국 문학의 어떤 면모들은 이 시대의 "퇴행"(backlash)이라고 비판당했습니다. 거세게 일어난 비판적 의견들에 문학인들, 문학 관련자들은 주의 깊게 관심을 보이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비판들이 가능했던 바로 그만큼 근래의 한국 문학이 이미 변화 속에 있다는 사실이 직시되었습니다. 등단 시스템의 독단성과 폐쇄성이 문제시되면서 독립 잡지의 발행과 그것을 통한 발표가 활발해진 현황, 발표 지면에 얽매인 문학 활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문학 활동에 대한 요청이 커진 세태 등이 적극적으로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변부' 문학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주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문학 운동으로서 소수적 활동이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벌써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거대 출판사들이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요 문예지인 『문학동네』와 『문학과 사회』가 시대의 요청에 따른 혁신을 선언하고 체제를 대폭 개편한 것은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민음사는 25년 간 유지해 온 문예지 『세계의 문학』을 2015년에 폐간하고 2016년 새 잡지 『릿터』의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릿터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이고 그것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등장했습니다.) 창비는 2017년 『문학3』을 창간하면서 "삶 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하는 문학"을 모토로 삼아, 달라진 문화적 조건 속에서 문학지, 문학웹, 문학몹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입니다. 이런 마당에, 혁신과 쇠신을 향한 한국 문학의 열망을 주변부적 소망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지난 2년여, '표절'과 '성폭력'으로부터 이어져 온 문학계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한국문학의 큼직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실은 그 이전부터 '공적인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회복해가는 문학장이 어느 정도 공론장의 기능을 시작한 징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 징후의 가장 명확한 사례가 한국문학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부각되고 대중적으로 이슈화된 페미니즘과 함께 널리 읽히며 다중적인 독해를 유발 중인 소설 『82년생 김지영』 이야기입니다. 2016년 가을 출간 이후 현재까지 약 80만에 달하는 이 소설의 판매 부수는, 물론 '상업적인' 성공을 먼저 알려주지만, 그 배경에 유명한 문학상이나 인기 영화화의 소식과 같은 소설 외적인 유명세의 덕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소설의 판매부수가 드러내는 의미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었다'는 단순한 팩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소설을 읽었다'는 것. 한 마디만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평범한 차별과 혐오를 35세 여성의 일대기로 재현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재작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논의를 문학계의 활기로 이어 온 주역입니다. 입소문을 타며 우연히 정치권의 인사들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82년생 김지영』의 신드롬이, '페미니즘'의 부각과 확산이라는 외부적 상황에만 힘입은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은 스토리가 확연히 잡히고, 이야기를 통해 감지되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십여 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한국 소설을 읽게 했을 때 늘 들었던 '어렵다'는 소리가 이 책을 읽히자 잠잠해졌습니다.) 에피소드들에서 생생한 디테일들이 개연적으로 활용되는 솜씨라든가 불쑥 끼어든 기사와 통계 자료를 건너 타며 보고서 양식으로 능청스럽게 넘어가는 기교가 출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솜씨와 기교는 이 '픽션'이 입각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키는 데 적절히 기여합니다.

저는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또 한 권의 인기 많은 소설인 『쇼코의 미소』를 함께 평하면서, "쓰는 '나'의 인생을 넘어 읽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호소함으로써 '쓰인 것'이 '읽은 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입을 열게 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들의 인기는 가히 '신드롬'이라 부르고 싶은 것인데 - 왜냐하면 '신드롬'이란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에는 '함께 달리다'는 뜻도 있다고 하므로 -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위의 입들이 함께 달리는 현상을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들 외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공론장의 작동과 시너지를 낼만 한 문학적 수행은 현재 가장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예컨대 박민정, 강화길, 정세랑의 소설들) 얼마 전에 또는 더 오래 전에 서사화되었던 여성의 삶도(물론 남성의 삶도) 다시 읽히고 다시 말해지면서 새로운 현실과 활발하게 길항하고 있습니다(예컨대 김숨, 김이설, 최진영의 소설들).

*

재작년 겨울 촛불의 광장은 한국 사회에 작동하는 공론장의 존재를 아름답게 증명한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너나없이 입을 열어 말을 보태고, 내가 너로 퍼져 우리가 되려는 호소가 가득했던 '광장'은, 이 시대 한국인들이 겪은 공통의 문학적 경험입니다. 광장의 경험이 낳은 것은 정권 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장' 이후, 사람들은 공론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것과 길항하는 기록물, 표현물들을 갈구합니다. 또한 스스로 거기에 연루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광장의 환희는, 설사 그것이 기존의 '문학적/미학적 체제'로 관리되는 감성과 일치하

Panel 1

지 않는다고 한들, 스스로 당당했습니다. '광장'을 겪으며 생겨나고 옮겨간 감성들의 자리가 문득 아름다운 발명처럼 돋보일 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이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끌기보다 저마다 말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기술(『82년생 김지영』), 내게서 네게로 번져간 마음을 더 큰 '우리'로 뭉쳐내는 감성(『쇼코의 미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작업으로서 인간 '정신'을 '견인'해 온 '문학'의 가치를 어떻게 드높일지 지금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한국에서, 광장/공론장의 민주주의, 그곳에서 경험한 민주적 표현의 힘과 함께, 더 활기차고 유창해진 어떤 목소리들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창한 활기가 한국문학에 오래 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소설을 읽고, 읽은 것에 대해 서로서로, 자꾸만 자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발제문은 발제자가 이미 발표한 세 편의 글 - 「수평선이 보인다: 2010년대 새로운 징후와 경향을 찾아서」(계간 『문학동네』 2015년 여름호),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웹진 문장(webzine.munjang.or.kr)> 2017년 2월호), 「(표현) 민주화 시대의 소설」(월간 『현대문학』 2017년 11월호) - 에서 발췌, 수정,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The Landscape and Trend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Mid 2010s and Beyond

Baik Ji Eun

Baik Ji Eun is a literary critic. She started her career in 2007 by winning The World's Literature New Writers' Contest in the criticism category. She published the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From the Reader's Perspective* in 2013. She is currently a visiting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As I think about what I can tell you about the climate of Korean literature in recent years, I look back on the last five years or so. It is 2018, so I go back to 2017, 2016, 2015, 2014... then I stop at 2014, reminded of the tragedy that occurred that spring, which, I have no doubt, is etched in the memory of every Korean. The 16th of April this year marked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the *Sewol* ferry and the tragic death of passengers onboard. I believe that the experience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prompted a great transformation in the mind frame of Korean society, and, inevitably,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as well. Of course, given that human society is always changing and literature is in "perpetual revolution," I cannot say that the current trends of Korean literature are attributed entirely to the aftermath of the 4/16 disaster. But when I consider certain trends and their momentum in the disaster-struck Korean society, I identify them as "the restored power of publicness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 sphere."

*

The 4/16 disaster was, in novelist Park Min-gyu's words, "an accident in which the country failed to rescue its people." That was when the Korean people realized that "our community does not guarantee our life and safety," as novelist Bae Myung-hoon said in dismay. The question that naturally follows is: What is community to us and what kind of community should we aim for? Or, if there is no community to us, then how are we supposed to survive as individuals? Although most Koreans were too devastated by the disaster to ponder such a question, they soon realized, as novelist Hwang Jeong-eun said, "None of us can escape from this." To the Koreans, it was more than an accident that occurred on April 16, 2014; it was what caused them to repeat every day, in critic Bok Do-hoon's words, "Today is the 16th of April." Everyone in the country was lost

in misery, despair, and disgust.

Nevertheless, there were people who determined not to stay lost and made themselves heard. Novelist Hwang Jeong-eun said, "How easy it is to say that there is no hope, that this is the world we live in and I won't even expect anything from it anymore, or that I have already lost trust in this world." And the writers who go on to write even when words fail them continued their struggle not to stay buried in despair and disgust. Around late 2014, the writers finally broke silence and started telling stories. Choi Eun-young's "Michaela," Chung Yong-jun's "Six Years" and Kim Ae-ran's "The Onset of Winter," to name a few, were stories about how survivors live on together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how they see their own pain and helplessness in others.

These stories, which I would call "the survivors' tales," instead of being rational ("Well, the survivors must live on anyhow") or didactic ("Tragedies like this should never happen again"), embodied the sense of coexistence and connectedness which was something like common ground or friendship established, however loosely, among survivors as they went through confusion, frustration, anxiety, and distress about death, pain, and misery. What it yearned to do, it seemed, was to bring together the common needs and desires of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to strongly unite the community. I think this is what we call *publicness*. I also think that people's desire to further inspire such publicness translates to the *power of publicness*. That power has begun to manifest itself in Korean writers as an ability to imagine, as best as possible, the pain of the weak, and also as an ability to inevitably craft stories in which some *weak alliance* is pursued.

I don't think it was too much to attribute the tangled causes of the 4/16 disaster to the collapse of publicness. 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people were left in shock and confusion, and when they finally managed to ask questions, the answers they wanted to hear, from anyone or anywhere, the topics they wanted to discuss, that is to say, almost everything they would like to say, hear, accept, or deny were bound to be about the *publicness* of our life. We had a feeling that what we called for, *whatever it was*, would involve wanting and doing things that were different from before the 4/16 disaster. Specifically, novelist Kim Ae-ran had a feeling that certain words like "sea," "travel," "nation," and "duty" would never have the same meaning again.

I don't mean to suggest that Korean writers have delved into the 4/16 disaster and related themes and invented new creative forms to properly deal with such topics. What I mean to suggest is that they have become conscious of how the ways in which words move, rather than of words themselves, and consequently begun to feel things differently, including even what they have already seen or heard before. However, I don't mean to suggest that every piece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an be eventually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4/16 disaster even when there is no direct relation. I just sense that the *field* in which we speak, listen, and think has somewhat changed. For example, I have realized that the definitions of things like

"Korean life," "the realistic world," "what is realistic in Korean society" have changed. After all, we cannot go back to the pre-4/16 disaster years.

*

In around 2015, Korean writers often discussed "changes in literary sensibility," although they were reluctant to declare, as did critic Ko Bong-jun, that "the sen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had radically changed." In particular, novelists said that the external circumstances had forced them to rethink *fiction* itself, and this collective experience had led to changes in the sen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Specifically, novelist Lee Ki-ho, who was born in 1972 and started writing fiction in 1999, expressed his feeling that "times had changed again." This was interpreted by critic Ko Bong-jun as response to the pressure of reality rather than the author's personal will or determination.) While this is a change in literary *sensibility*, I think I can also call it a shift in the literary *circuit*. In the aftermath of the 4/16 disaster, important issues on "the need/role" or "circuit" of words rose to the surface. These issues were not raised by authors or from within their works but triggered from the outside, which was the field in which their issues (i.e. the need, role, and circuit of words) already needed to be addressed. The field with "the gravity of reality given from the outside" is the *public sphere*.

In short, I would like to say that after the 4/16 disaster, the public sphere started working in Korean society. Yes, I'm talking about the place about which critic Park Seong-chang had doubts from the 1990s. He asked, "Hasn't it become no longer possible to envision the public sphere as an ideal place where the publicness of communication is realized?" Around that time, there were already lamentations about how the public sphere had hardly worked properly since it lost the cohesion it had in 1980s Korea where it was, as critic Kim Tae-hwan said, "an adventurous time-space filled with tension, excitement, and passion, created by specific conditions, such as clear confrontation, attention focused on a single issue, and time limit for resolution." Then we have begun to see that people trying to ask questions, "directed toward Korean society as a whole," about the truth, hear and talk about it, and have a "conversation together about the truth" are determined to become public beings by associating their own misery with the misery of the world as best as they could.

We cannot say that this is entirely due to the shock of the 4/16 disaster. Even before the disaster, it was already pointed out, by critic Jeong Gwa-ri, that we should give careful attention to "literature's quest toward social horizon." In other words, "Korean literature's tendency not to ultimately seek solutions based on social horizon—that is to say, based on the willingness and possibility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interacting within a grou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s—was identified as a problem. Speakers and writers here in Korea were already sensing where their words were headed in the air they breathe and what those words desired. I think that since the 4/16 disaster, those words have entered a different trajectory than before. We have wanted to see, and have seen, something like a horizon in the distance above the place where we speak, write, and read, that is to say, over the many paths in which

words move in Korean society.

*

So if you ask me whether or not the restored power of publicness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 sphere have served Korean literature well in recent years, I don't think I can say "yes" with confidence. As you may or may not know, a series of scandals plaguing the Korean literary community have been exposed over the last two to three years.

In 2015, it was revealed that "Legend," an early work by Shin Kyun-sook, one of the most popular authors in Korea, had plagiarized the Japanese author Mishima Yukio's short story "Patriotism." Since the evidence was clear whereas Shin's explanation was not, this ultimately led to her downfall. The public was disappointed by the scandal, calling it a corrup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blaming it on the incompetent and depraved literary field. In 2016, the literary community was the first in Korea to start the Me Too movement on Twitter (#speak about_sexual violence_within the literary community). The reported insta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ere typical cases of power abuse prevalent in society, but they were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the shameless perpetrators who had justified themselves on the absurd grounds that "Literature is inherently transgressive," "One should deviate from the norm before they can understand literature," or "Literature requires breaking the mold." It prompted criticism and reflection on whether the literary community had turned a blind eye to such practices.

It was criticized that Korean literature clamored for the reinstatement of criticism based on *outdated* literary rules and advocated *anachronistic* perceptions in literary re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Korean culture was insensitive to the reader's (or the public's) needs and desires for a cutting-edge culture and a better community. Some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that were still closely aligned with elitism and patriarchy were criticized as putting the clock back. In response to the surge of criticism, those engaged or involved in literature listened carefully and agreed.

At the same time, it was realized that Korean literature had been already changing in recent years to the extent that such criticism was possible. More conscious attention was drawn to the fact that increasingly more works had been published by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since the existing system through which new writers began their career was brought into question for its dogmatic and closed nature, and also to the growing call for literary activities that were not confined to paper but practiced in real life. This is not about various literary movements from the *periphery* but about major trends in Korean literature. It is not the minority activities as a kind of literary movement but the system itself that has already moved. Large publishers are on the move. As examples of small changes, the major literary magazines *Munhakdongne* and *Literature and Society* announced a reform to their system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Minumsa stopped publishing its 25-year-old literary magazine *The World's Literature* in 2015 and started publishing the new *Littor* in 2016. ("Littor" was introduced as a newly coined term ("Literature" +

"-tor") that referred to both writers and readers, defining them as the actors of literature.) In 2017, Changbi Publishers launched *Literature 3* with the motto "literature discovered and practiced in real life." In the changed cultural conditions, the publisher is running a literary magazine, a literary website, and a literary mob, all at the sam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n literature's desire for innovation and reform cannot be dismissed as a desire from the periphery.

In short, the voices of self-criticism and self-reflection raised within the literary community over the last two years, triggered by the incidents of plagiarism and sexual harassment, are leading major changes in Korean literature. As I mentioned earlier, this can be a sign that the literary field, where the power of publicness was already being restored, however slowly, has begun to function as the public sphere to some degree.

*

The clearest example of this change broke out on the scene of Korean literature, causing a sensation. I am talking about *Kim Ji-Young Born 1982*, a novel that, along with feminism, unprecedentedly highlighted and publicized worldwide as well as in Korean society, has reached a wider, popular audience. The number of copies it has sold, about 800,000, from its publication in the fall of 2016 to the present, obviously points to this novel's *commercial* success. However, this success, achieved without winning a prestigious literary award or being made into a high-profile movie, is still noteworthy. In my opinion, the significance of the number of copies this novel has sold lies in the simple fact that an exceptionally large number of people have read it. To elaborate, many people have read a Korean novel, and those many people who have read it are talking about it.

Kim Ji-Young Born 1982 is about the experience of common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Korean women, presented in the life story of a thirty-five-year-old woman. This novel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ranslating the misogyny controversy, triggered by the murder of a woman by a man in Gangnam Station in the year before last, into energy in the literary community. This novel went viral, stirring up debate even among some politicians, which drew even more attention to the book. However, I cannot say that the sensation generated by this novel was entirely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rise and spread of feminism. Simply put, this novel has its strengths: a solid storyline with a clear message. (To illustrate, this is the first Korean novel in my ten years of teaching at college that my students did not find "difficult.") The author's skills of presenting episodes in a convincing manner using minute details or abruptly inserting articles and statistics before making a smooth transition to reportage style are excellent. And such skills and techniques effectively contribute to this fiction making the real experience of many people come alive.

When I reviewed this book, *Kim Ji-Young Born 1982*, along with another popular book, *Shoko's Smile*, I described them as "stories that go beyond the writer's life and resonate with the reader's life, moving the heart of the reader and making them open their mouth." The popularity of these stories is something I would like to call a *syndrome*, in that this term is from the ancient Greek

발제 2

word that means "running together," and I feel that the phenomenon of our mouths running together, talking about this book, should not be ignored. (In addition to these stories, literary performance likely to generate synergy effects with the working of feminism as a public sphere is being carried out more actively than ever before (in stories by Park Min-jeong, Kang Hwa-gil, and Chung Se-rang, to name a few). The lives of women told in stories recently or long ago (not to mention the lives of men) are being read again and told again, actively grappling with new reality (in stories by Kim Soom, Kim I-seol, and Choi Jin-young, to name a few.)

*

The candlelight rallies that took place in the square in the winter before last were a historic, political event that beautifully proved the existence of the public sphere at work in Korean society. This *square*, which was filled with the desire of you and me to speak out and to become we, represents a common literary experience of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is time. The experience of the square led to not just the change of government. After the *square*, people have begun to yearn for the documentaries and works of expression that observe and deal with the working of the public sphere. Besides, they are willing to involve themselves in it. The joy of the square, even if it was incompatible with the sensibility governed by the existing "literary/aesthetic system," was enjoyed on its own. When we suddenly realize that the place where sensibilities were generated or moved by the experience of the *square* stands out like a beautiful invention, we are reminded of the truth that sensibility to *beauty* is not unchangeable. I cannot say with confidence now how things like the skill of engaging the voices of many, rather than a single voice, in narrating the story (as in *Kim Ji-Young Born 1982*), or the sensibility of bringing the heart of you and me together into the larger "we" (as in *Shoko's Smile*) will enhance the value of literature as a fundamentally solitary undertaking which has inspired the human spirit. But I think it is also difficult not to feel in Korea these days the democracy of the square/public sphere, the power of democratic expression experienced there, and certain voices which have become more energetic and eloquent. I hope that this eloquent energy will stay with Korean literature for a long time to come.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read Korean fiction and keep talking to each other about what they have read.

* This presentation is culled from my three published articles: 1) "The Horizon in Sight: In Search of New Signs and Trends in the 2010s" (The Summer 2015 issue of the quarterly *Munhakhongne*); 2) "Thoughts on K-Literature and the End of Criticism" (The February 2017 issue of *The Webzine Munjang* (webzine.munjang.or.kr)); and 3) "(Expression) Fiction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The November 2017 issue of the monthly *Contemporary Literature*).

번역가의 책무와 헌신

최미경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국제회의 통역사, 동물보호 운동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느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파리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황석영 『삼포가는 길』,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등 40여권의 도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압바스 왕조의 통치기 첫 200년(8세기-10세기) 동안 새로 건립된 수도 바그다드에서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요 그리스어 문헌의 라틴어 번역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헬레니즘, 로마, 고대말기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글들, 철학, 수학, 해부학, 음악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이 번역작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만 하더라도 74권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전체에서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이후 세속 그리스 문헌의 연구는 아라비아어 자료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이다."¹

1천년 전 바그다드에서 있었던 이 믿기 어려운 번역사업은 정책의 지속성과 지원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작업과 공통분모가 있다. 타문화권과 지식 교류를 위하여 번역이 정책적으로 진행되며 국가가 후원을 한다는 점이다. 문화적 사명을 띤 현행 번역 사업에서 번역가는 작가, 작품, 출판사, 후원기관, 독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아 서로 다른 주체들을 중개하며 문학작품을 전달하는 피봇 역할을 한다. 특히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작품이 소개되는 1990년대에는 작품 선정, 번역, 출판사 의뢰 등 작업이 전적으로 번역가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다. 한국문학번역의 경우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주도하는 번역작업이 아니라 번역지원 기관과 번역자의 기여가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이 대표적으로 잘 수용된 프랑스어권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문학작품으로선 최초로 서구어로 번역된 『춘향전』 (Printemps parfumé, 1892년)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래로 총 522권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소개가 되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지젤 사피로는 저서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나 한국의 문학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역량과 재능있는 번역자들이 번역작품을 인정하도록 기여한 덕분이다.[...] 인터뷰를 해보니 미국의 출판사들이 한국책을 직접 읽기 위해서 프랑스어로 출판을 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²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달력을 가진, 다양한 언어의 지형을 고려해야하며, 영어몰입 번역정책의 한계를 읽을 수도 있다.

한국문학의 번역은 외국문학과 외국문화와의 필연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번역되는 곳의 문학적 상황에

1 『그리스 사상과 아랍문명, 번역운동과 이슬람의 지적 혁신』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aas), 드미트리 구타스 지음, 정영목 번역, 글항아리, 2013
2 지젤 사피로, "세계화 시대의 불균형 교류, 번역의 지형" (Des échanges inégaux, géographie de la traduction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http://www.sgd.org/la-documentation/les-dossiers/1115-des-echanges-inegaux-geographie-de-la-traduction-a-lheure-de-la-mondialisation>

따라 장르, 작가, 작품이 선택³되며, 도착어의 문체, 문학적표현, 관습과 타협하거나 확장하는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특히 적극적이며 창의적인⁴ 독자로서 원문을 읽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원작의 의미를 해석, 독자의 언어로 다시쓰는 과정을 구현한다. 문학작품은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바처럼 위대한 작품일수록 "열린 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번역되는 시점, 수용문화, 번역자, 수용독자에 따라 의미가 구체화 또는 확장된다. "번역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필연"이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에 인간의 상상을 집어넣지 않고는 번역을 할 수 없다. 어떤 텍스트의 독자가 되는 순간, 빈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번역이 인간적인 것이 된다"⁵. 번역에 대한 이런 입장들이 시사하는 바는 원문과 번역문간의 언어적 정합성만을 평가하는 방식이 번역자의 창의성에는 큰 제약이 된다는 점이다.

번역가의 지원제도에 불가결한 평가는 번역의 질을 상향 균질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번역을 언어간, 또는 텍스트간의 문제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신하고 과감한 제도를 통해 번역작품을 선정, 지원하고 번역자를 믿고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 지원제도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임에도 샘플번역으로 인한 출판사 미출간물 증가, 기성번역가들의 외면, 미출판의 경우 번역 후불금 미불(지원금은 출판을 반드시 전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영미권에서 주목받은 한국문학 번역작품들이 번역원의 지원작이 아니라는 점은 번역원에서 진행되는 평가에서 새겨야 할 부분이다.

번역인력강화를 위해서는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신인번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동일언어권내의 번역자/감수자 간의 네트워킹,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사후 관리, 출판사와 프로젝트 진행추진 등의 개선을 기대해보고 싶다. 번역가가 번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 번역가들의 외국어 및 언어역량 개선을 위한 레지던스 제도를 한국인 번역가들에게도 실시해주길 바란다. 특히 출판사의 섭외 부분에서 번역원은 현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더욱 보강, 언어권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번역가의 업무를 덜어주기를 부탁드린다. 출판사와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판기념행사 및 독자와의 만남 외에도 언론노출, 현지 도서전 등 현지 문학행사에의 적극적 참여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문학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문학과 교류가 진행되는 방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모델이다.

문학번역은 창의성 고유의 영역으로 시기술의 발전에도 계속 번역가라고 하는 인적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에 한국고전문학번역원에서는 인간번역의 지남함을 들며 시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도하였다. 결과가 크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더욱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온 것은 번역가를 행정의 대상으로만 고려하는 관료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번역작업의 본질인 다의성의 이해와 창의적 재표현을 기계는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별로 전체번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고전번역의 경우, 한자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판본을 가지고 번역작업을 진행하는 이중번역이 진행중이라 정확한 한국어 본이 필요하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그 어떤 문자보다도 더욱 사용자의 용법과 해석이 뜻을 확정짓는다. 이미 번역된 자료가 쌓여야지만 성능이 개선되는 기계가 어떻게 매번 창조적인 문학작품의 번역을 제대로 진행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번역가 양성에 투자한다면 우수한 인력이 번역분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될 것이다.

30년 전에 비해 우수한 번역인력이 확보되었으나 번역가의 양성은 장기적이고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다. 본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프랑스어 공부에 입문 후 문학공부의 즐거움보다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

3 부르디외는 문학에서의 "장"과 "아비투스" 개념에서 프랑스 문학의 장에서 사실주의적 소설이 지배적인지 관찰하였고, 구양빅은 부르디외의 이론을 응용 미국문학작품이 뒤늦게 번역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프랑스 문학장에 거의 부재하던 미국 범죄소설 장르가 중국에는 하나의 장으로 성립하게 된다.

4 『슬픔의 비의』, 와카마스 에이스케, 김순희 옮김, 위즈덤하우스, 2018.

5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정영목, 문학동네, 2018

어, 깊이있는 언어공부를 위해서, 또 유능한 감수자를 만나 한국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약 40여권 정도 번역을 하면서 황석영 작가와 이승우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번역하는 행운을 얻었다. 프랑스에서의 다양한 행사에 통역으로 참여하면서 한국문학, 아니 문학작품이 얼마나 큰 반향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경험하는 좋은 시간들을 누렸다. 특히 민주화 투사이며 위대한 작가인 황석영 작가와 20년 동안, 파리, 리옹, 보르도, 낭트, 엑상프로방스, 아를르 등 다양한 도시에서 역사와 인생에 대해 질문하는 진지한 독자들과의 만남에 통역으로 참여, 큰 감동을 받았다.

2016년 파리도서전 주빈국인 한국관에 황석영, 이승우 작가의 서명시간에 여러시간 동안 줄서는 것을 마다않던 프랑스 독자들의 모습도 번역자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승우 작가의 『한낮의 시선』과 같이 심오한 작품을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다시 쓸 수 있는 즐거움과 다산 정약용의 『한밤중에 잠깨어』 시선을 번역하며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열녀춘향수절가』와 황석영 『연꽃의 길, 심청』은 큰 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자상한 감수자는 물론, 멋진 동료들과 같이 하기에 이 작업은 더욱 의미있다.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둔 이승우 작가의 경우 고 김순희 선생님의 번역으로 일본에도 성공적으로 소개되었다. 피키에를 비롯한 다양한 출판사와 편집과정에서 제목선정, 언론을 위한 자료작성, 표지제안 등에 협력하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타협점을 찾는 작업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기술한 부분들은 현재 한국문학번역 출판작업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번역자의 다면을 잘 보여준다. 번역가야말로 서로의 이해와 보안을 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 "통역이 필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표현은 언어와 문화의 소통이 평화의 지름길임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평화를 구가하는 유럽연합의 언어가 "번역"이라고 했던 움베르토 에코의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기계가 점점 인간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다문화와 다양한 문학의 공존을 지탱하며 평화에 기여하는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답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6 정영목, 이화여대통역번역원교수, 대표적 영미문학번역가, 연합뉴스 인터뷰

Panel 2

The Obligation and Dedication of Translators

Choi Mikyung Choi Mikyung is a professor at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She is also a conference interpreter and an animal rights activist.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rench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from Sorbonne University in Paris and her Ph.D.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from the Institute of Intercultur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SIT). She has translated more than 40 books, including *The Road to Sampo* (*La route de Sampo*, Zulma, 2004) and *The Private Life of Plants* (*La vie rêvée des plantes*, Gallimard, 2009),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France.

"During the first 200 years (8-10th centuries) of the Abbasid Caliphate, something unprecedented happened in the newly constructed capital of Baghdad. A movement to translate major Greek documents into Latin was initiated. The sheer size of this feat of translating documents across subjects of philosophy, math, anatomy, music, etc., that had been passed down since Hellenism, Rome and ancient times was beyond imagination. The footnotes of Aristoteles alone took up 74 books, and this was only a very small part of the project.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research of secular Greek texts since then was nearly impossible without the existence of the Arabic data.¹"

This unbelievable translation project which took place a thousand years ago in Baghdad is not actually comparable to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itiative of Korean literature in terms of the continuity of policy and the size of support, but the two still have some common denominators. One is that translation is supported by national policy for the academic exchange with other cultures. In our current translation initiative which takes on a meaningful cultural purpose, translators serve as a literary pivot between authors, literary works, publisher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readers. In the 1990s, when Korean literature actually began gathering attention, the translator was the sole commissioner of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iterature, translating and creating bridges with publishers, etc.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1 Dimitri Gutas,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aas*, translated by Chung Young-mok, Geulhangari, 2013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s not piloted by publishers or agencies, but rather by translation institutes and with the contribution of translators. In French speaking cultures especially, where Korean literature has been well-received, data from LTI Korea shows that a total of 522 Korean books have been introduced in French since *Printemps parfumé* (1892), which was the first Korean literary work to be introduced in French. The renowned French sociologist, Gisele Sapiro, commented in her book that "Korean literature has come to be widely recognized in France and the Netherlands, because competent and talented translators have made contributions to make translated works accepted. [...] Interviews show that American publishers wait for Korean literature to be published in French for them to be able to read Korean books."² This tells us that we must consider the topography of various and conveyable languages, and also take note of the limitations of English-centric translation policies.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s an attempt to capture the inevitable concurrence with foreign literature and culture. The literary situation of where the translation takes place determines the genre, author and the selection of the book.³ Compromises are made or relationships ar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tone of the target language, literary expressions and customs. The translator's job is to read the original text as an active and creative⁴ reader, to interpret the various potential of its meaning, and to rewrite it in the language of the reader. As Umberto Eco once said, the greater the work,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it to be an "open work."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becomes detailed or is expanded, depending on the time of the translation, the target culture, translator and target audience. "The different results of translation carried out by different translators are inevitable," and "translation is impossible without the input of human imagin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The moment one becomes a reader of a text, rooms for interpretation spring up, which is why translations gain a human quality⁵" Such positions on translation show that evaluating only the consistency between the original and translated text could hinder the creativity of the translator.

The inevitable process of evaluation in the support programs for translators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s, but it still has given little weight to the complexity of translation by considering it as a matter between languages or texts. We are in need of a fresh and radical approach in selecting and supporting books for translation and entrusting the translator with the task. The current support system, despite having shown great improvement, still faces issues, including the increase of unpublished sample translations, disinterest from existing translators, deferred payment for unpublished translations (support grants are finalized

2 Gisele Sapiro, «Des échanges inégaux, géographie de la traduction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http://www.sgdl.org/la-documentation/les-dossiers/1115-des-echanges-inegaux-geographie-de-la-traduction-a-lheure-de-la-mondialisation>

3 From the notions of "field" and "habitus" in literature, Bourdieu observed whether literature of the realism movement was dominant in French literature. Applying Bourdieu's theory, 구양빅 observed that American literature began being translated much later on. In the end, the genre of American crime thrillers, which was nearly non-existent in French literature, later is established as a "field."

4 Wakamatsu Eisuke, *The Meaning of Sadness*, translated by Kim Soon-hee, Wisdom House, 2018.

5 Chung Young-mok, *From Perfect Translation to Perfect Language*, Munhakdongne, 2018

on condition of publication), etc. The fact that translated Korean literary works which have garnered attention in English-speaking markets are books that have not received support from LTI Korea, provides food for thought for the evaluation process which exists in the current grant program run by LTI Korea.

To improve the capacity of translators, strengthened support for new translators freshly trained from the academy as well as, networking opportunities between translators and editors in the same language, post-guidance for graduates of the academy, and more project opportunities with publishers would be necessary. A policy model through which translators can focus on the quality of translation would be optimal. I hope the residence program which will help translators improve on their linguistic potential, would be offered to Korean translators as well. Especially when it comes to forming arrangements with publishers, LTI Korea could strengthen its department of capable and dedicated workers, and also form a specialized team for each language which would ease the load of translators. Participation in publishing events and meetings with readers, local book fairs or literary events, and more media coverage are also essential for collaborating with publishers. The ideal and effective model should not end at merely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but should create exchanges with local literary scenes at the same time.

Literature translation is authentically a field for creativity, and the role of translators will not be diminished in spite of the progress in AI technology. Nevertheless,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as recently cited the extreme difficulty of human translation as a reason for their continued attempt to develop an AI translation software. Their determination to develop this program, with comments that the translations by the software were not up to par, is a display of extreme bureaucratic administration. It is impossible for a machine to understand the varied meaning and nuances and creatively reproduce them, which are the essence of the translation proces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ranslation of ancient literature, which takes up to 10% of the translated work in each language group, most projects are translated by using modern Korean texts which are translations of the original work,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require an accurate Korean text. Chinese characters are representative ideograms and their meanings are determined by how users use and interpret them. The machine can only translate with a compilation of translated data; but how would it be able to translate creative literary work every time? If the budget for software development could be directed towards the support for translators, more talent will naturally flow to the field of translation.

Many talented translators have emerged these days, compared to 30 years ago. That being said, training translators is a long-term task which requires patience. My case would be an example of this. After first beginning my studies in French, I was more captivated with the beauty of the language rather than finding the joy of learning the literature. To deepen my knowledge of the language, and also thanks to meeting a highly competent editor, my career eventually took the path of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a foreign language. During the course of translating

approximately 40 books, I was lucky enough to be able to translate the works of Hwang Sok-yong and Lee Seung-U continuously. Interpreting at various events held in France, I was able to experience first-hand how influential Korean literature, no, literature could be to readers. Especially accompanying Hwang Sok-yong, who is a champion of democratization as well as being a wonderful writer, for 20 years, I have been touched by witnessing the questions about history and life posed by serious readers in Paris, Lyon, Bordeaux, Nantes, Aix-en-Provence, Arles and more.

During the 2016 Paris Book Fair, where Korea was the guest of honor, I was gratified, as a translator, to see the long line of French readers who did not mind waiting for Hwang Sok-yong and Lee Seung-U to get signatures from the authors. I was blessed as a translator to re-write such a beautiful work as *Le Regarde de Midi* by Lee Seung-U into French. The process of translating Dasan Chong Yak-yong's *Awoken in the Night* offered me great consolation, and I was honored with great prizes through my translations of *Le chant de la fidele Chunhyang* and *Shim Chong, fille vendue* by Hwang Sok-yong. Working with a generous editor and great coworkers is what makes this job more meaningful. Lee Seung-U, who has had great success in France, has also been very popular with the Japanese audience, thanks to the translation of the late Kim Soon-hee. I have also worked with various publishers such as Editions Phillipe Picquier for selecting titles in the editing process, creating content for press release and for making suggestions for the book cover, during which I helped find the middle ground in the matters of cultural differences.

The translator carries out various roles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Korean literature. A translator is truly a person who works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help by supplementation.

The expression "an inter-Korean summit which does not require interpretation," which has been used these days, suggests that communication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is the shortcut to peace. This adds weight to Umberto Eco's words, that the translation is the language of the peaceful Europe. In this age where it is argued that machinery would gradually be replacing humans, speaking of the role of translators who contribute to peace by supporting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and literature could also serve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t is to be human."⁶

6 Chung Young-mok, Professor at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Noted translator of English literature, Interview with Yonhap News

Session 2

세션 2

발제 3

『엄마를 부탁해』와 『채식주의자』 이후 창비가 펴낸 주요 장편소설

강영규

2002년 민음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2005년 창비에 입사해 문학, 인문사회, 계간지 등 여러 편집부서를 거쳐 2016년부터 문학출판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문학과 역사, 철학, 예술 분야 책을 즐겨 읽으며, 동양과 서양의 활자문화 전통을 접목하는 데 관심이 많다.

창비 소개

창비는 1966년 비판적 종합지 계간 『창작과비평』을 창간하며 한국의 지성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50여년간 많은 화제작을 출간해왔다. 그밖에도 인문사회, 교양, 어린이·청소년, 교육 등 각 분야의 양서들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근래에는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뉴미디어 부문과 교육 부문에 각각 계열사를 설립해 종합 문화콘텐츠 그룹을 지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창비의 대표작가

창비는 지난 50여 년간 격변을 겪어온 한국의 시대현실과 한국인의 삶을 실감나게 담아내는 문제작을 출간해왔다. 그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국내외로 잘 알려진 사례로는 황석영 장편소설 『바리데기』, 신경숙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한강 장편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수준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은 동시에 폭넓은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들이다.

황석영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며 해외에도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된 작가 중 한명이다. 창비에서 출간한 장편소설로 한정해도 『바리데기』 외에 『손님』, 『오래된 정원』, 『무기의 그늘』 등이 모두 6~7개 언어권에서 번역된 바 있다.

신경숙은 2008년 출간한 『엄마를 부탁해』로 한국에서 200만부 이상 판매되는 현상을 낳았다. 이 작품만으로 34개 국가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2011년 맨아시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아마존 올해의 책 10권'에 선정되었다.

은희경은 1995년 데뷔한 이래 현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삶을 날카롭고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17여권의 장편소설과 소설집으로 많은 독자를 보유한 작가이다. 장편소설 『마이너리그』,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

한다』 등이 1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 영문판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영어권 독자들을 놀라게 한 작가이다. 그 후 23개국에서 번역된 이 작품과 함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연이어 해외에 소개되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온 한국문학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성석제, 박민규 같은 작가들에 이어 김애란, 황정은 같은 젊은 세대도 국내 독자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해외에도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영 어덜트 분야에서는 김려령 장편소설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 구병모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권에서 번역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0년대 이후 창비의 주요작품

황석영 장편소설 『바리데기』 (2007)

한국의 전통설화 '바리데기'에 21세기 탈북자 소녀의 현실을 결합해 한반도와 전세계에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절망과 폭력, 전쟁과 테러의 문제를 다룬다. 인종, 종교, 국경, 이데올로기를 경계로 갈라진 인류를 위로하고 구원을 모색하는 대작이다.

신경숙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2008)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엄마가 실종되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그녀를 찾는 딸과 아들, 남편 그리고 엄마 자신의 목소리가 차례로 등장해 가부장제 속에서 가려져 있던 여성으로서의 엄마의 삶을 복원해간다. 신경숙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내면묘사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경숙 신드롬'을 낳은 이 작품은 출간 1년도 안되어 100만 부가 판매되고 4년 만에 200만 부를 넘어섰다.

한강 장편소설 『채식주의자』 (2007)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선언한 여자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동물성/식물성, 폭력의 문제를 생생하고도 초현실적인 문장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영국인 번역가이자 한국문학 연구자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이 작품은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 직후 열광적인 서평을 받았으며, 2016년 한국소설 최초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2014)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2016)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학살 현장과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 그리고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다섯 살 소년의 시선을 중심으로 정교하고도 밀도있는 문장으로 그려낸다. 11개국에서 번역 출간됐으며, 만해문학상(2014)과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2017)을 수상했다.

김애란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2011)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젊은 작가군의 대표주자 김애란의 첫 장편소설. 급성 조로증으로 투병하는 소년과 그를 17세에 낳은 젊은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로, 부모보다 빨리 늙어가는 아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족간의 사랑을 유머러스하고도 감동적으로 그린다. 6개 국에서 번역 출간됐으며, 동명 영화로

도 제작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성석제 장편소설 『투명인간』 (2014)

'한국문학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작가 성석제의 장편소설.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우여곡절을 관통해온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비정한 현실 속에서 끝내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각 시절마다 평범한 한국인이 겪었을 다양한 생활상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복원하는 작가의 솜씨가 경탄할 만하다. 요산문학상(2014), 채만식문학상(2014)을 수상했다.

황정은 장편소설 『계속해보겠습니다』 (2014)

한국소설의 새 세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황정은의 세 번째 장편소설. 가난한 어린 시절을 공유했던 세 젊은이가 돌아가며 화자로 등장해 그들이 성장하며 경험한 소외와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독특한 상황 설정과 시적인 문장으로 특히 젊은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산문학상(2014)을 수상했다.

한수산 장편소설 『군함도』 (2016)

작품 구상에서 취재, 완성까지 30년이 걸린 역사소설. 일제강점기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섬에 징용된 조선인들이 처참한 강제노역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나 1945년 8월 원폭 피해를 겪고 그 중 살아남은 자들이 귀환하는 오디세이를 그렸다. 1946년생 작가가 '필생의 역작'으로 꼽는 작품이다. 일본과 대만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채만식문학상(2017), 가톨릭문학상(2017)을 수상했다.

정세랑 장편소설 『피프티 피플』 (2016)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를 50개의 장으로 구성한 작품. 의사와 간호사, 보안요원, 병원 직원 등 거미줄처럼 얽힌 50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한다.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 교차하는 병원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한국일보문학상(2017)을 수상했다.

안재성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2018)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22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전쟁(1950)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인물 정찬우의 수기를 바탕으로 소설화한 작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내부의 분위기나 포로수용소의 실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비극의 기원을 보여주는 작품.

김금희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2018)

10대 시절 화재사고로 친구를 잃은 경애와 상수가 30대가 되어 회사 동료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분투하는 동안 그들은 점차 가까워지고 결국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처한 사회현실과 함께 사랑, 우정, 연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Panel 3

Major Novels Published by Changbi after *Please Look After Mom* and *The Vegetarian*

Kang Young-gyu Kang Young-gyu started working for Minumsa in 2002 as a literary editor. In 2005, he joined Changbi Publishers, where he worked in several editing departments, including literatu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for *The Quarterly Changbi*. He has been heading Changbi's Literary Publishing Division since 2016. Kang enjoys reading literary fiction, history, philosophy, and art, and is deeply interested in fusing the traditions of Eastern and Western printing cultures.

About Changbi Publishers

Changbi Publishers is primarily a literary publisher that launched in 1966 *Creation and Criticism*, an intellectually stimulating critical quarterly in Korea, and has published a number of much-talked-about books over the last five decades. Changbi is also a trusted publisher of high-quality books on humanities, social sciences, liberal arts, education, and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recent years, Changbi has been aiming to become a general cultural contents group by establishing new media and education subsidiaries to cope with the new media environment.

Changbi's Authors in the 2000s and Beyond

Changbi has published controversial books that capture the realities of a rapidly changing Korea and the life of Koreans over the last five decades. *Princess Bari* by Hwang Sok-yong, *Please Look After Mom* by Shin Kyung-sook, and *The Vegetarian* by Han Kang, to name a few, are among the novels that have reached a wider audience at home and abroad since the 2000s. They are all both critically acclaimed and widely popular.

Hwang Sok-yong is a leading Korean novelist in the 1970s and beyond, and he is one of the most translated Korean authors. His novels, published by Changbi alone, such as *Princess Bari*, *The Guest*, *The Old Garden*, and *The Shadow Of Arms*, have all been translated into six to seven

languages.

Shin Kyung-sook is the author of *Please Look After Mom*, published in 2008, which sold over two million copies in Korea. *Please Look After Mom* alone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irty-four countries. In 2011, *Please Look After Mom* was awarded the Man Asian Literary Prize and named one of Amazon's Ten Best Books of the Year.

Eun Hee-kyung, who debuted in 1995, is the author of seventeen novels and story collections that have attracted many readers with their poignant and humorous portrayals of modern Korean society and life. Her novel *Minor League* and her story collection *Beauty Despises Me*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en countries.

Han Kang is the author who amazed Anglophone readers with the English translation of her novel, *The Vegetarian*, which won the Man Book International Prize in 2016. Following the ensuing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in twenty-three countries, *Human Acts*, another novel of hers, which dealt with the 1980 Gwangju Democratic Movement of Korea, was also introduced abroad, drawing global attention to Korean literature, which had been out of the spotlight compared to Chinese or Japanese literature.

In addition, praised by local readers, the works of witty storytellers like Song Sok-ze and Park Min-gyu, as well as young generation writers like Kim Ae-ran and Hwang Jung-eun, are also being introduced abroad.

Young adult novels that have good response from readers include *Wandeuk* and *Elegant Lies* by Kim Ryeo-ryeong and *Wizard Bakery* by Gu Byeong-mo. They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to good reception i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and Indonesia.

Changbi's Novels in the 2000s and Beyond

Princess Bari (2007) by Hwang Sok-yong

The Korean folk tale 'Princess Bari' and the reality faced by a North Korean defector gir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e combined to address the issues of violence, war and terrorism, and the despair brought about by the wave of neo-liberalism sweeping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world. *Princess Bari* is a masterpiece that seeks to bring comfort and salvation to human beings divided by race, religion, border, and ideology.

Please Look After Mom (2008) by Shin Kyung-Sook

This novel begins with a mother gone missing at a subway station one day. As her daughter, her son, and her husband look for her, their voices and her own take turns narrating the story, restoring her life as a woman—a life buried in patriarchy. Praised by readers for the author's unique, exquisite writing style and psychologic description, *Please Look After Mom* became a sensation, selling a million copies within a year of publication and over two million within four.

The Vegetarian (2007) by Han Kang

Centered around a woman who one day declares her sudden decision to become a vegetarian and what happens to her as a result, this story explores, in vivid and surreal prose, human desire, animality vs. vegetability, and violence. Translated by Deborah Smith, a British translator and researcher of Korean literature, *The Vegetarian* was published in the U.K. and the U.S. to rave reviews. In 2016, *The Vegetarian* became the first Korean novel to wi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Human Acts (2014) by Han Kang

This is the sixth novel by Han Kang, winner of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for her *The Vegetarian*. The massacre during the democratic movement that lasted ten days from May 18, 1980 in Gwangju, Korea, the noble resistance of citizens, and the aftermath affecting people left behind are recounted through the eyes of a fifteen-year-old boy in rich and detailed prose. *Human Acts*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eleven countries and was awarded the Manhae Literary Prize (2014) and the Malaparte Prize (2017), an Italian literary award.

The Youngest Parents with the Oldest Child (2011) by Kim Ae-ran

This is the first novel by Kim Ae-ran, one of leading young writers who emerged in the 2000s and beyond. It tells the story of a boy who suffers from rapid aging syndrome and his young parents who were seventeen when he was born. The irony of a child aging faster than his parents is described with wit and pathos as the story explores the meaning of life and love in the family. *The Youngest Parents with the Oldest Child*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six countries, and also made into a high-profile movie.

An Invisible Man (2014) by Song Sok-ze

This is a novel by one of the best storytellers in Korean literature. It shows the life of a man who lived through ups and downs i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rom the 1950s to the 2000s, painting a sad portrait of a man among us who, worn down by harsh reality, eventually turned into 'an invisible man.' Various aspects of the life of an average Korean in each period are brought to life with amazing attention to detail. *An Invisible Man* has been awarded the Yoson Literary Prize (2014) and the Chae Man-sik Literary Prize (2014).

I Will Go On (2014) by Hwang Jung-eun

This is the third novel by Hwang Jung-eun, who represents the new generation of Korean fiction writers. Three youths who spent their childhood in poverty take turns narrating the story, speaking of the alienation and violence they experienced growing up and the possibility of finding hope in it. The novel appealed especially to younger readers for its unique setting and poetic prose. *I Will Go On* received the Daesan Literary Prize (2014).

The Battleship Island (2016) by Han Susan

This is a historical fiction novel that took thirty years from conception and research to

completion. Se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novel follows the odyssey of the Koreans sent to forced labor in Hasima Island in Nagasaki, Japan who escaped for their life and returned home after surviving the atomic bombings of August 1945. Considered by the author, born in 1946, to be his magnum opus, *The Battleship Island*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Japan and Taiwan, and awarded the Chae Man-sik Literary Prize (2017) and the Catholic Literary Prize (2017).

Fifty People (2016) by Chung Se-rang

This novel consists of fifty chapters of episodes taking place in an urban university hospital. The stories of fifty people, including doctors, nurses, security guards, and hospital employees, weave together to form a large picture. The hospital, where life and death meet, is the stage on which the stories that encapsulate various aspects of modern society unfold. *Fifty People* received the Hankook-Ilbo Literary Prize (2017).

No One Remembered (2018) by Ahn Jae-sung

This novel is based on the memoir of a real person named Chung Chan-woo, a North Korean Worker's Party officer who, at the tender age of twenty-two, fought in the Korean War (1950) before he was taken prisoner and incarcerated for ten years. *No One Remembered* contains a vivid account of the hitherto less-known inner workings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POW camps during the Korean War. The novel shows a glimpse into the origin of the tragic division of Korea, which remain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Kyung-ae's Heart (2018) by Kim Keum Hee

Kyung-ae and Sang-su, who lost their friend in a fire accident as teenagers, meet again in their thirties as co-workers. They, however, do not realize that they share the same old wounds of the past. While Kyung-ae and Sang-su march on in each of their lives, they get closer to each other, and find out about their connection. The novel well depicts the reality the younger generations in Korea live in, as well as their love, friendship and solidarity.

발제 4

칙릿 소설에서 여성 소설까지

박혜진

2011년부터 민음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며 문학 단행본을 비롯해 문학 잡지 『릿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이 싫어서』, 『82년생 김지영』 『딸에 대하여』 등을 편집했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2008년 칙릿 소설

현재 한국의 문학 출판계는 여성소설(women's fiction) 전성시대입니다. 여성소설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정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작가가 썼을 가능성이 높고 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 및 대상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소설이 대중적 관심 속에서 붐을 형성하며 출판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문학 출판 시장을 이끌었던 칙릿소설이 그로부터 10년 후인 현재 보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소설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문학 출판계에 정이현, 백영옥이 촉발한 칙릿 문학의 기세는 컸습니다.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십십 대 여성 주인공의 연애와 생활, 취향을 주심 내용으로 하는 칙릿 소설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을 거쳐 2000년대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1999년 영국에서 출간된 소설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며 칙릿 장르를 출발시켰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국내에 출간된 것은 2001년 문학사상사에서입니다. 이후 출간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계보를 잇는 칙릿형 소설입니다. 미국의 유력 패션잡지인 《보그》 편집장의 비서로 일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2006년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칙릿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대표적인 칙릿 소설은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 백영옥의 『스타일』, 이홍의 『걸프렌즈』입니다. 『스타일』의 주인공은 직장 생활 8년차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는 중산층 여성인 주인공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을 적절히 대변합니다. 예컨대 에르메스 백과 마놀로 블라닉 슈즈를 갖고 싶은 물질적 욕망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내는 선의를 향한 욕망 사이를 오가며 당대 도시 여자들의 삶과 고민을 비교적 솔직하면서도 생생하게 잘 보여 주며 소비 주체로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칙릿 소설 독자인 30여 여성들은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 능력, 가능성이 높은 삶을 살고 있던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예속된 관계없이 오직 자기 자신으로 등장해 자신의 문제로 갈등하고 분투하는 최초의 여성 주인공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여성 소설

2018년, 칙릿 소설의 자리는 여성소설로 대체되었습니다. 일과 사랑에 대해 고민하던 전문직 여성들의 이미지는 보다 다양한 여성들과 다양한 관계의 여성들로 분화되었습니다. 한국 소설에 나타난 주체적이고 다종다양한 여성 인물들은 전에 없던 미학을 축적해 가며 한국 문학을 깊이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이 소비하는 여성소설은 모성 신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칙릿소설이 출판 시장에서 독자들에게 어필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판도가 바뀐 것은 최근 출간된 여성 소설들과 함께입니다.

『82년생 김지영』(1982)은 여성소설의 대중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80만 부가 판매되었고 한국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출간된 이 소설은 1982년에 태어난 여성이 살아온 인생을 일대기로 보여 줍니다. 오직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재구성한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서사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르포르타주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성차별의 실제 상황과 그 메커니즘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죠.

다른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이 이례적인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소설이 주목하지 않았던 대졸자 경력단절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재 30대들과 향후 30대가 될 20대들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뿌리 깊은 여성혐오(misogyny) 문호의 실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 줌으로써 세대와 성별에 있어 확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더해 '백델 테스트'를 거꾸로 적용시켜 남성 중심 서사를 뒤트는 풍자적 방식으로 여성 서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젠더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여성소설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만판 『82년생 김지영』은 발매 일주일 만에 초판이 소진되어 중쇄를 찍었고 종이책 부문이 10위권 내에 진입했음은 물론 전자책 1위에 올라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는 중입니다. 일본어판 출간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로, 페미니즘 시각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중적 지지도를 얻고 있는 작품이 희귀한 것 역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르포르타주적 구성은 한국 내에서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확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딸에 대하여』는 지난 해 민음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신간 소설입니다. 어머니 '나'와 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이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딸애의 사생활 앞에 '노출'된 엄마와 세상과 불화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버린 딸.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며 엄마의 일상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독거노인 여성, 중년의 노동하는 여성, 레즈비언이면서 시간강사인 여성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여성들이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과정과 그 현장에서의 삶을 대상화하는 시선 없이 그려내고 있는 소설로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딸에 대하여』 역시 출간되자마자 일본 출판사에서 판권을 획득해 현재 번역 중에 있고 대만, 베트남판 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작품을 비롯해 전에 없이 많은 여성소설들이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고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미 출판계의 칙릿 붐이 한국의 출판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의 여성소설 붐이 동아시아 출판계에 새로운 여성소설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사이트 아마존에는 '우먼스 픽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먼스 픽션은 여성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 이 아래에는 문학에서 로맨스까지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개념과 범주는 중요합니다. 이름이 생길 때 더 다양한 여성소설이 쓰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학 출판계에 등재되어야 할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소설입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이름 없던 것들이 이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그것들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Panel 4

From Chick Lit to Women's Fiction

Park Hye Jin Park Hye Jin has been with Minumsa since 2011 as a literary editor, working on literary books and the literary magazine *Littor*. The novels she has edited include: *Because I Hate Korea*, *Kim Ji-Young Born 1982*, and *About My Daughter*. Park is also a literary critic who debuted in *The Chosun Ilbo* New Writers' Contest in 2015.

Chick Lit in 2008

Today, women's fiction is having its best days in the Korean literary fiction industry. While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women's fiction can be defined by at least a few conditions: it is likely written by a female author, it is primarily about the life of women, and it resists prejudice against, and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A boom in the popularity of women's fiction is bringing new energy to the book industry. Ten years after the rise of chick lit that led the book market in the late 2000s, it is evolving into a new form: women's fiction.

In the mid 2000s, the Korean literary fiction industry saw the strong rise of chick lit, started by such writers as Chung I-hyun and Baek Young-ok. Chick lit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love, life, and taste of a female protagonist in her 20s or 30s who has a professional career. Chick lit started in the U.K. in the mid-1990s and reached the U.S. before arriving in Korea in the 2000s. The chick lit genre was launched when the novel *Bridget Jones's Diary*, published in the U.K. in 1999, became a worldwide bestseller. The Korean translation of *Bridget Jones's Diary* was published in 2001 by Literature & Thought. This was followed by the publication of another chick lit book, *The Devil Wears Prada*. Based on the author's own experience as assistant to the editor of the leading US fashion magazine *Vogue*, *The Devil Wears Prada* in 2006 gained immense popularity in Korea as well, generating a boom in chick lit.

The leading Korean chick lit books in this period are: *Sweet City of Mine* by Chung I-hyun, *Style* by Baek Young-ok, and *Girl Friends* by Lee Hong. The life of the contemporary woman is well reflected in *Style*, in which the protagonist is an ordinary middle-class woman in the eighth year of her career at a fashion magazine. For example, the protagonist's desire for material possessions,

like Hermes bags and Manolo Blahnik shoes, alternates with her desire to perform good deeds by contributing to the support of children in Africa. With its honest and vivid portrayals of the life and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urban woman, *Style* identified women as consumers. The readers of chick lit are women in their 30s, and they have more self-esteem, abilities, and possibilities in life than any other previous generation. They have identified themselves with the first female protagonists who are not in bondage with others, notably family, but on their own struggling with their own challenges.

Women's Fiction in 2018

In 2018, the popularity enjoyed by chick lit has been taken over by women's fiction. The characters of female professionals struggling with work and love in the former have been divided into more different women in different relationships in the latter. The variety of self-reliant female characters who emerged in Korean fiction have contributed to unprecedented aesthetic elements that add depth to Korean literature. However, the women's fiction consumed by the public was still permeated by the myth of motherhood. A new trend in women's fiction, comparable to the appeal of chick lit to the book market, did not emerge until recently.

Kim Ji-Young Born 1982 is a novel t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opularizing women's fiction. Published in October 2016, it sold 800,000 copies within a year and seven months and became a starting point for the 'Me Too' movement in Korea. The life story of a woman born in 1982 is presented in episodes that only women can experience. It does not follow a traditional narrative structure but adopts a reportage style that is more effective in presenting real-life situation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mechanism.

This novel's exceptional popularity can be explained largely by two factors. The first is that its protagonist, a female college graduate on a career break, underrepresented in existing novels, appealed to those in or entering their thirties. The second is that deep-seated misogyny was illustrated in specific examples that appealed to a wider audience across generations and gender. Moreover, the Bechdel test used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 satirical twist on male-dominated narratives called attention to the need for women's narratives and publicized the gender issue for debate.

The sensational response to women's fiction in Korea is expected to spread abroad. In Taiwan, for example, the translated version of *Kim Ji-Young Born 1982* sold out its first edition within a week of its release and went into its second edition. Unprecedentedly for a Korean book, it has not only reached the top ten on the paper book chart but also become the best-selling e-book. The publication of its Japanese translation is equally encouraging. Women are experiencing universal issues. Also universal is the lack of books written from feminist perspectives but still popular. In this regard, the reportage-style structure of *Kim Ji-Young Born 1982* proves to be effective in reaching a wider audience across borders as well as within Korea.

발제 5

About My Daughter was Minumsa's best-selling new release last year. The narrator 'I' is a mother who starts living with her daughter and her lesbian lover for economic reasons. The mother who is unwillingly "exposed" to her daughter's privacy and the daughter for whom being at odds with the world has become a part of life. As their uncomfortable cohabitation continues, the mother's everyday life takes unexpected turns. This novel was acclaimed by critics and readers alike for its portrayal of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of different ages and from different walks of life—an old woman living alone, a middle-aged working woman, a lesbian who works as a part-time instructor—without objectifying their life. *About My Daughter* also sold its rights to a Japanese publisher upon its release, and translation is underway. Its Taiwanese and Vietnamese translations will be also published. These two are among the unprecedentedly many works of women's fiction that are acclaimed by critics and chosen by readers. Just as a boom in chick lit in the UK and the US generated a new trend in the Korean book industry, a boom in women's fiction in Korea is generating a new boom in women's fiction in the East Asian book industry.

The world's largest online site Amazon has a category called "Women's Fiction" under Literature & Fiction. Women's fiction is a super ordinate category that includes various novels dealing with women, ranging from literature to romance. Concepts and categories are important. The creation of names allows a wider variety of women's fiction to be written, facilitating its growth. If there is a phrase that should be added now to the vocabulary of the literary fiction industry, it is "women's fiction." When nameless things can be called something, they begin to have names. The moment they have names, they begin to exist.

한국문학 쇼케이스 지금, 한국문학의 가장 신선한 성취를 중심으로

강운정 문학 편집자. 텍스트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여 2007년 출판사에 입사했다. 현재 문학동네에서 일하고 있다. 파스텔배움 편집자 되기 과정 강사이며 독서 에세이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를 펴냈다.

안녕하세요, 문학동네 편집부 강운정입니다.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세계 각국의 출판인 여러분, 국내 출판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한국문학의 지형과 동향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문학이 꾸준히 해외에 소개돼온 덕에, 그리고 2016년 작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뒤인 올해, 소설 『흰』으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숏리스트에 또 한 번 노미네이트되는 큰 결실을 맺으며, 한국문학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문학동네 역시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작품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최근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한국 문학 작품들 가운데 새로운 얼굴을 중심으로 자신 있게 추천, 소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했던 한강 작가의 『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애도와 부활, 인간 영혼의 강인함에 대한 책이다." 영국 맨부커상 운영위원회는 『흰』을 이렇게 소개하며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후보에 지명했죠. 강보, 소금, 눈, 달 등 세상의 흰 것들에 대한 65편의 글을 묶은 소설 『흰』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독특한 형식이 두드러지는 한강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더불어 문학동네에서 펴낸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두 종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희랍어 시간』은 '말(言)'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眼)'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프랑스에 소개되었으며, 프랑스 메디치문학상 최종 후보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사슴』, 1993년 등단 후 꼬박 3년간 집필에 몰두해 완성한 한강의 첫 장편소설입니다. 치밀하고 빈틈없는 서사와 깊은 울림을 주는 시적인 문장들로, 출간 당시 "한 젊은 마이스터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보다 앞서 수많은 나라에 번역 소개된 김영하 작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문학동네에서 모든 작품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여섯 권의 장편소설과 네 권의 소설집이 이미 20개국 가까이 번역 소개되었

습니다. 2018년 4월 장편 가운데 최근작인 『살인자의 기억법』이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해외문학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일본번역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호평을 받았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7년 만에 출간한 소설집 『오직 두 사람』은 출간 6주 만에 10만 부 판매를 돌파하였는데, 한국 소설집으로는 이례적인 속도로, 같은 기간 대비 온라인서점 예스24 기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소설집"이었습니다. 이후 출간 7개월 만에 20만 부 판매를 돌파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최대 규모의 서점 체인 교보문고에서 서점 직원과 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2017 '올해의 소설'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문학동네 스테디셀러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인 안도현의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입니다. 이미 10여 개국 이상에 소개된 작품으로, 1996년 3월에 첫 출간돼 20년이 넘도록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2007년 100쇄를 찍었으며 2017년 7월에는 100만 부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100만 부 돌파를 기념해 1만 부 한정판으로 표지를 달리한 리커버 에디션을 선보였었는데, 데버러 스미스의 영문 번역판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를 함께 수록해 기존의 『연어』와 비교해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는 영국 최고의 출판사 중 하나인 맥밀런(Macmillan) 그룹 계열사 팬 맥밀런(Pan Macmillan)에서 출간되어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한국이 국제 문학시장에서 놀라운 문학 포스(force)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스칸디나비아 누아르? 한국 작가들이 스릴러 장르를 재발명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대표적인 인물로 김언수 작가를 들었습니다. 독일 출판사 오이로파 페어락이 김언수 작가를 '한국의 헤닝 만켈'이라고 명명한 것을 인용하기도 하였는데, 기사 내용과 같이 김언수 작가의 장편 『설계자들』의 미국 판권은 최근 'a six-figure sum', 즉 억대의 계약금을 받고 더블데이 출판사에 팔렸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빠른 속도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으며, 곧 20개국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 영화 판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덧붙여, 이 작품은 2016 프랑스 추리문학대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언수 작가 역시 모든 작품을 문학동네에서 출간하고 있는데, 첫 장편 『캐비닛』은 20여 편의 돌연변이 이야기가 옴니버스로 구성된, 상상력 넘치고 재기발랄한 작품입니다. 또한 『설계자들』 이후 6년 만에 출간한 최근작 『뜨거운 피는 'K-스릴러' 문학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흔 살, 전과 4번, 부산 변두리 강패들의 중간 간부이자 호텔의 지배인 회수와, 암흑가 보스인 손영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송고하지 않은, 그래서 더 뜨거운 피를 가진 남자들의 짝내나는 인생 이야기는 독자들을 또 한 번 흥분시킬 압도적인 서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갈등과 첨예한 권력 싸움에 휘말리고 점점 더 치열하게, 점점 더 비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진한 페이소스가 특히 매력적입니다.

'K-스릴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학동네의 장르문학 전문 임프린트 엘릭시르에서 최근 출간한 『마당이 있는 집』도 권하고 싶습니다. 언뜻 서정적인 제목과 "마당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는 의미심장한 커피의 온도차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단편영화를 만들고 장편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던 신인 작가 김진영의 데뷔작으로, 행복한 일상을 의심하기 시작한 여자와 불행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여자의 삶이 교차하며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강렬한 심리 서스펜스이자 가정 스릴러입니다.

엘릭시르에서 출간한 서미애 작가의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또한 최근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드라마 극본과 영화 각본을 비롯해 소설 『반가운 살인자』, 『잘 자요, 엄마』 등을 쓴 추리작가 서미애의 네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딸의 죽음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 우진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입니다. 그런 우진에게 어느 날 딸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다"고 적힌 쪽지가 도착하면서 작품이 묘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사회파 미스터리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범인이 누구냐'보다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마음에 접근하여 애절함까지 느끼게 하는 수작입니다.

역시 엘릭시르 출간작 『나의 오컬트한 일상』(전2권)은 전문 번역가이자 서평가가 쓴 미스터리 로맨스입니다. 박현주 작가는 제드 러벤펠드의 『살인의 해석』, 레이먼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 찰스 부코스키의 『여자들』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소설의 화자 역시 여성 프리랜서 작가이자 번역가인데, 다리를 크게 다친 뒤 일이 끊긴 화자가 작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집 동지인 경은의 소개로 새로 창간하는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습니다. 이 칼럼의 소재가 바로 오컬트입니다. 점성술, 풍수, 파워 스포츠, 부적, 흥가와 기 클리닝 등을 소재로 일상의 사건을 해결하는 오컬트 로맨스 미스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후더닛(whodunnit), 즉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에 초점을 맞춘 미스터리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거기에 오컬트라는 소재를 덧입혀 흥미로움을 자아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 없는 현상에 나름의 설명을 끌어내어 추리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미스터리에서 느끼기 힘든 재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는 아니지만, 역시 독특한 이력의 작가를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강명 작가인데, 11년간 일간지 기자였던 소설가입니다. 정치부와 사회부에 있었죠. 2011년 등단해 당대 사회와 인간의 윤리관을 파고드는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의 장편소설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제20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우발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칼로 찔러 살해한 남자, 그 남자의 사랑을 늦게 깨달은 한 여자, 남자의 칼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그의 곁을 맴도는 또 다른 여자, 요컨대 제각기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속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저서로 돌풍을 일으킨 젊은 여성 작가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설가 50명이 추천한 '2016 올해의 소설'로 뽑힌 데서도 알 수 있듯, 인지도 없는 신인 작가임에도 선배 작가들이 먼저 읽고 추천,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2016년 여름에 출간되어 신인 작가의 첫 소설집으로는 이례적으로 10만부를 돌파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진 두 인물이 만나 성장의 문턱을 통과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표제작 '쇼코의 미소', 베트남전쟁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던 응웬 아주머니와 '나'와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썩짜오, 썩짜오',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케냐 출신의 청년 한지와 만나게 된 영주의 이야기를 담은 '한지와 영주' 등 담담하게 이어지는 7편의 소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하고 맑은 힘을 담은 문장과 상기(上記)한 소개에서 짐작 가능하듯 한국적 정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유대감을 획득해내는 차세대 유망주이자 기대주입니다.

같은 해에 출간되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여성 작가의 소설집을 한 권 더 추천해볼까 합니다. 김금희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너무 한낮의 연애』입니다. 표제작의 편치라인 "사랑하죠, 오늘도"처럼, 김금희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의 사람들은 심상한 말로 세계의 진실의 한 단면을 정의합니다. 표제작이 곧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적어도 지금 내가 가장 읽고 싶은 것은 그의 다음 소설이다"라고 추천의 말을 덧붙였는데, 그만큼 젊은 소설가의 안정적인 솜씨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일품인 작품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일본 쇼분샤에서 최근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소재가 독특한 장편소설 두 편을 더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손보미 작가의 첫 장편 『디어 랄프 로렌』입니다. 제목의 '랄프 로렌'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랄프 로렌'이 맞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랄프 로렌은 어쩌서 시계를 생산하지 않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부터 멀게는 1930년대 나치의 유대인 박해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랄프 로렌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고리 삼아 띠처럼 엮어 보입니다. 랄프 로

Panel 5

렌의 '생전' 언론 기사 등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해 읽는 내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랄프 로렌은 생존해 있지요. 이 작품은 2017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한 편은 정용준 작가의 두 번째 장편 『프롬 토니오』입니다.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연인과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두 화산학자와 지진학자의 이야기에, 생텍쥐페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하는 작가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바닷속 유토피아가 맞물린 작품입니다. 생텍쥐페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시공간을 통과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현재로 온다면, 그리고 두 화산학자와 지진학자가 그와 동행해 생텍쥐페리의 여정에 함께 한다면. 일종의 환상문학이면서 인간 존재와 사랑, 그리움을 성찰한 작품입니다. 손보미와 정용준 작가의 두 작품 모두 이국적 정서와 취향 등이 돋보이지만 단순히 이국적인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문학동네는 독창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개성 있고 감각적인 작품을 꾸준히 발굴, 소개할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한국문학을 통해 세계 문학 평단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casing the Freshest Works of Korean Literature

Kang Yun-jeong

Kang Yun-jeong entered the industry as a literary editor in 2007, with the hope of having a job that handles text. She currently works for Munhakdongne and is also an instructor for the Pastel Baeum editor training course. She is also the author of a book of essays, titled *We sit side by side and read our books*.

Hello. My name is Kang Yun-jeong, and I am an editor at Munhakdongne.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able to share our views on today's landscape and coming trends of Korean literature with publishers from Korea and abroad at the 2018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hanks to the ceaseless effort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these past 20 years, Korean literature is now more widely recognized than it has ever been. This is also partly in thanks to the remarkable accomplishment of Han Kang's *The Vegetarian* which received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16, and Han Kang's *The White Book*, which was short-listed for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this year as well.

Munhakdongne also spares no effort in cultivat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ased on its long history and accumulated experience. Today,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the overseas results of recent Munhakdongne publications, and also introduce to you several of the new faces among Korean writers that are making remarkable strides.

The first would be the aforementioned *The White Book* by Han Kang. "It is a book about mourning, rebirth and the tenacity of the human spirit," was how the Man Booker committee introduced *The White Book* as they nominated it for the short list of this year. A collection of 65 stories about things that are white such as a swaddling cloth, salt, snow, and the moon, *The White Book* is the most recent work by Han Kang, contemplating life and death in a unique format.

There are two more novels by Han Kang published by Munhakdongne that are also worth

mentioning. *Greek Lessons* is a story depicting the instant when the silence of a woman losing her grip on words and the light of a man losing the use of his eyes, come together.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to Japanese and French readers and was a finalist for the Medici Book Club Prize. *Black Deer* is Han Kang's first full-length novel which took a full 3 years to complete, immediately after her debut in 1993. The meticulously laid out narrative and deeply resonating sentences earned her praises such as "the work foretells the birth of a young maestro."

Another author of importance I would like to mention is Kim Young-ha, who has actually been introduced to foreign audiences well before Han Kang. All of Kim's works are published by Munhakdongne. His six full-length novels and four novels have been published in its translated form in 20 countries. In April of this year, his most recent *A Murderer's Guide to Memorization* received an award for works of foreign literature which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Japanese language. The story of a retired chain murderer suffering from Alzheimer's was also made into a successful film.

In May of last year, Kim's first short story collection in 7 years, *Only Two People* sold 100,000 copies within 6 weeks. This is an exceptional speed for reaching the top of the list for a Korean short story collection, and the Korean online book seller Yes24 said, "it was the best selling Korean short story collection in the past decade." Within 7 months of its release, it sold more than 200,000 copies, and Korea's largest on/offline book retailer Kyobo Books selected it as "The Best Book of 2017," selected by its employees and customers.

One of Munhakdongne's steady sellers you may be interested in is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 a children's story for all ages written by poet Ahn Do-hyun. The book has been introduced in more than 10 countries, and has stayed on the steady seller list for 20 years since its publication in March of 1996. The book went into its 100th print run in 2007, and by July of 2017 recorded over 1 million copies in sales. In commemoration of selling a million copies, a special edition was published, which, to the delight of the book's fans, included Deborah Smith's translation of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 was also published by Pan Macmillan within the Macmillan Publishing Group in the UK, where it was again highly received by critics and readers alike.

Perhaps some of you have read the recent article in the Guardian, which reported that Korea is making its rise as a phenomenal literary for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article was titled, "The new Scandi noir: the Korean writers reinventing the thriller" and the first author to be given introduction was Kim Un-su. The article quoted German publisher Europa Verlag calling Kim, "the Korean Henning Mankell." His thriller *The Plotters* has been the subject of a wildly enthusiastic auction in the US, where it recently sold to Doubleday for a six-figure sum. The book is quickly gaining recognition in nearly 20 countries including Japan, France, the UK, and Australia, and international film companies are also battling for rights. The book was also a finalist for the 2016 Grand Prix de la Littéraire Policière.

Kim Un-su is also an author whose books are all published by Munhakdongne. His first novel, the wildly imaginative and terribly clever *The Cabinet* takes on the form of an omnibus including 20 stories about mutants.

Also, *Hot Blooded*, his first novel in 6 years since *The Plotters*, captures the full potential of the "K-thriller" genre. The story revolves around Hee-soo, a forty-something with four prior convictions, who is a mid-level boss of a small gang in the outskirts of Busan and also a manager at a hotel. It also involves Old man Sohn, the head of an organized crime group. The story of these undignified, hot-blooded men and the wretchedness of their lives are sure to excite readers once again. There is massive conflict which transcends the personal realm of force, and the lives of the two protagonists who fall deeper into the cutthroat battle for power become rougher and dirtier, giving the story a rich blend of pathos.

If K-thrillers are a genre that piques your interest, I would also recommend the recently published *The House with a Yard* (unofficial title) by Elixir, Munhakdongne's specialized imprint for genre literature. The mystery of the gap between the peaceful sounding title and the tag line, "The yard reeks of the rotting smell of a corpse" will satisfy the appetite of any mystery fan. The suspense-filled domestic thriller marks the debut of new writer Kim Jin-young, a former film writer. It depicts the lives of two women, one who harbors sudden suspicion about her perfect life and one who does everything she can to escape her misery.

Another Elixir book tha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recently is *The Night Your Star Disappeared* by Seo Miae. This is the fourth novel by mystery writer Seo, who has previously written *Happy to See You Murderer* and *Sleep Well Mom*, as well as many screenplays. Woojin's wife, who suffered from depression since her daughter's death, takes her own life from a rooftop, right in front of his eyes. After a short while, Woojin receives a mysterious note saying that he does not know "the true killer" of his daughter.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chase for the bad guy, it is a masterpiece that leads the readers to the core of the victim's sorrow, while maintaining all the shades of a mystery novel.

Another Elixir publication, *My Supernatural Days*, is a mystery/romance novel written by professional translator and book reviewer, Park Hyun-joo. Park has translated books such as Jed Rubenfeld's *The Interpretation of Murder*, Raymond Chandler's *The Long Goodbye*, Truman Capote's *In Cold Blood*, and Charles Bukowski's *Women* for the Korean audience. The narrator of the novel is a freelance writer/translator herself. Unable to work due to a leg injury, the narrator begins to write for a newly published magazine introduced by her friend Gyung-eun, whom she goes to the same fortuneteller with. The column is about the occult, and the book, which involves astrology, fengshui, power spots, spells, haunted houses, and chi cleansing, can be categorized as an occult romance mystery. It is a traditional whodunnit, but the occult factor gives it an extra layer of enchantment. The book displays a process of explaining supernatural happenings, which sets it apart from other mystery novels.

The next book is not of the mystery thriller genre, but it is from a writer with quite an extraordinary background. Jang Kang-myung had been a reporter writing about politics and society for a daily newspaper for 11 years before becoming a novelist. Since his debut in 2011, he has been writing books that delve into contemporary society and human morality, and his latest, *Crescent Moon* was the recipient of the 20th Munhakdongne Author Award. A man who incidentally stabs his high school friend to death, a woman who realizes her man's love a little too late, and the mother of the friend who was stabbed to death by the man are the three people in conflicting positions who carry out this story of atonement and forgiveness.

Another strong recommendation I bring to you today is *Shoko's Smile*, written by the young writer Choi Eun-young, who has taken the industry by storm with her first book. The fact that 50 authors selected the book as "The best book of 2016," shows that this new writer's book was noticed up by established writers first and soon got spread by word of mouth. After being published in the summer of 2016, the first book by this first-time author sold over 100,000 copies. The book is a collection of 7 stories. "Shoko's Smile" is a coming of age story about two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languages. "Shinjiao, Shinjiao" is the story of aunt Eungwen, the protagonist and her mother, who all had to witness the death of a close one due to the Vietnam War. "Hanji and Youngju" tells the story of Youngju who meets the Kenyan-born Hanji at a monastery in France. The flow of her gentle and softly powerful words are what wins the readers', and not only Korean readers', for that matter, connection to the story. The book will make you believe that she is a writer to keep an eye on.

I would like to recommend one more book that has been a hit in the same year – Kim Keum-hee's second book, *Love at Midday*. The tagline "I love you, today as always." offers a glimpse of the people in the world of Kim Keum-hee's creation, who define the cross section of the truth of the world filled with ordinary words. The title piece is soon to be made into a television drama. Literary critic Shin Hyung-chul said that "At least at this moment, the book I am most anticipating is her next book." The well-founded way of storytelling and intricate depiction of feelings will pleasantly surprise you. It was recently translated and published in Japan by Shobunsha, who are also here today with us.

I'm going to finish up with two more unique novels today. The first is Son Bomi's first novel, *Dear Ralph Lauren*. Yes, the Ralph Lauren is exactly the same Ralph Lauren you are thinking about. You could say that the novel starts off with the question, "Why does Ralph Lauren not manufacture watches?" Reaching as far back as the 1930's during the Nazi's persecution of the Jews, the novel forms a belt of stories about people connected to Ralph Lauren. The reader must keep guessing the lin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as there are various elements in the novel like newspaper articles from when Ralph Lauren was alive. Of course, as you know, Ralph Lauren is alive and well. The novel was the recipient of the Daesan Literary Awards in 2017.

The last book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oday is Jeong Yong-jun's second novel, *From*

Tonnio. The novel, based in Portugal, is about a volcanologist and a seismologist who lost their families and loved ones. The story which depicts an underwater utopia, unfolds on top of the unusual question, what if Saint-Exupéry came back to life? What if Saint-Exupéry was able to travel through time and space to meet with his lover in the current age? And what if the volcanologist and seismologist accompanied him on this journey? The book is indeed a type of fantasy but at the same time takes an insightful look at human existence, love and longing. Both works by Son Bomi and Jeong Yong-jun display an exotic mood, but the messages they convey are sure to touch contemporary readers everywhere with a common sentiment.

Munhakdongne will continue to discover and bring to readers inimitable, delightful and thought-provoking books. We sincerely hope that the wide spectrum of Korean literature will spark discussions in the global circle of literary critics. Thank you for listening.

Discussion

종합 토론

종합 토론 1 Discussion 1

아이라 실버버그 Simon & Schuster 출판사, 미국

미국 대형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의 선임 편집자. 2015년 10월부터 Simon & Schuster에서 편집자로 재직하며 문학, 비문학, 번역서 판권 계약을 진행했다. 최근 편집한 작품으로는 소설가 샘 립시트(Sam Lipsyte)와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올리비에 부르도(Olivier Bourdeaut)가 있다. 문학 에이전트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미국국립도서관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소설가 애덤 해즐릿(Adam Haslett), 크리스토퍼 소렌티노(Christopher Sorrentino), 르네 스틱커(Rene Stinker)와 같은 작가들을 대표했다. 비문학 작가로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스마엘 베아(Ishmael Beah), 닐 스트라우스(Neil Strauss), 그리고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Kate Spade), 아만다 브룩스(Amanda Brooks)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그로브 출판사(Grove Press)와 서펜츠 테일(Serpent's Tail)의 편집장으로 재직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엘프리데 옐리네크, 헤르타 뮐러, 오에 겐자부로와 재클린 수잔(Jacqueline Susann) 작가의 작품 『인형의 계곡』(Valley of the Dolls)을 재발간 하였다. 아이라 실버버그는 미국 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문학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도 전임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Ira Silverberg Senior Editor, Simon & Schuster/ USA

Ira Silverberg joined Simon & Schuster in October 2015 and acquires literary fiction and non-fiction, including translations. He recently brought novelists Sam Lipsyte and the French bestseller Olivier Bourdeaut to the list. Among the clients he represented when he was an agent were National Book Award fiction finalists Adam Haslett, Christopher Sorrentino, and Rene Steinke; bestselling nonfiction writers Ishmael Beah and Neil Strauss; and design gurus Kate Spade and Amanda Brooks. As an editor at both Grove Press and Serpent's Tail, he reissued work from Nobel Prize winners, Elfriede Jelinek, Herta Muller, and Kenzaburo Oe. He also had the pleasure of bringing Jacqueline Susann's *Valley of the Dolls* back to print. Silverberg is the former Director of Literature at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d currently Adjunct Faculty at The School of the Arts MFA Writing Program at Columbia University.

종합 토론 2 Discussion 2

아스크 한센 Gyldendal 출판사, 덴마크

아스크 한센은 코펜하겐 대학에서 비교 문학을 공부하였고, 칠레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덴마크 최대 출판사인 Gyldendal에 입사해 덴마크 소설과 번역서 판권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문학평론가와 언론인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영어권 소설을 덴마크어로 번역하는 문학 번역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Ask Hansen Acquiring Editor, Gyldendal/ Denmark

Ask Hansen studied comparative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and wrote his master thesis on the Chilean author Roberto Bolano. He has been with Gyldendal, Denmark's biggest publishing house, since 2015 and acquires foreign fiction as well as working on the Danish list. He has formerly worked as a literary critic and a journalist and is active as a translator of American and English fiction into Danish.

